

믿음의 동역자님께,

이스라엘 김정환 김지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대속과 구원을 바라보기를 기원합니다. 앞선 기도편지를 보내드린 이후, 함께 기도한다는 격려의 문자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은밀한 중에 기도로 동역해 주신 동지들께도 인사 올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일꾼에게 큰 용기와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정착 초기부터 이곳 갈멜산 정상에 살면서, 주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을(무슬림, 두르즈)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1)예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2)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지난 시간 동안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제법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잘 활용됨을 감사합니다.

얼마전에는 '나인'이라는 (눅 7 장) 마을을 동역자들과 방문하였습니다. 이 천년 전, 예수님의 기적을 마을 전체가 체험한 곳이지만, 이제는 100% 무슬림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년의 부부와 인사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집에 30 세 되는 큰 딸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 내외와 가족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도, 딸과 가정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장성한 아들이 제법 강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표하는데도 이를 제지하면서, "이것은 네 누이의 삶과 관련된 일이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동행한 세 명의 사역자들 모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앞 전에는 '타이베'라는 '이즈르엘 평야'에 위치한 마을에 갔었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에 7-8 명의 외국인들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끔식 방송과 신문을 통해 들은 신바도 있으시겠지만, 때로 강경한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뜻하지 않는 봉변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절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이럴 때, 서양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을 사이에서 '윤희유'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연고도 없이 동네에 갔지만, 막상 들어가니 심하게 훼손된 유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유적에 대해 물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유적지 바로 옆 집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셔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분이 저희들을 집 안으로 불러 주셔서, 2 시간 여 동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나 자라고, 평생 사신 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 하는 것이(물론 무슬림도 예수님을 예언자들 중 하나로 숭앙합니다. 심지어 어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기도가운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길지 않은 방문,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2)예수 믿는 친구들도 제법 있고 해서, 이 분들과 교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1)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과 더더욱 자주, 의도적으로라도 만남과 모임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김지수 선교사는 나사렛에 위치한 나사렛병원, 산부인과와 정신과 병동에서 만들기와 종이 접기, 게임 등을 인도하면서 환우들과 간호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웃는 얼굴을 지을 때 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산부인과를 방문하다 만난 한 환자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당신이 와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렇게 둘째 때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병원 사역을 수년째 감당하면서,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나는 열매가 없어 아쉽기도 하고 의기 소침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엄마의 반갑고 고마운 인사로, 위로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1. 온 가족이 우리말, 영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랍어에 능통하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2. 병원사역과 이즈르엘 평야 지역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3. 유월절 기간중 방문할 베드윈, 두르즈 친구들을 위해